

개방화와 국제화시대, KCID의 역할 더욱 강화되어야...

임종완(limjw@ekr.or.kr)

KCID 전임이사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자연환경연구소장



ICID 사무국 사무총장과 함께한 KCID 임종완 전임이사(오른쪽 첫번째)

◆ 골드러시 시대의 중심지 새크라멘토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제58차 집행위원회(IEC) 및 제4차 국제관개배수학술발표회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도인 새크라멘토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필자(KCID 전임이사)를 포함하여 농림부, 학계, 사계, 한국농촌공사 등에서 모두 13인이 대표단으로 참가하였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열시간 남짓, 태평양 바다를 건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 일행은 공항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회의 개최지인 새크라멘토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새크라멘토까지는 북동쪽으로 160km, 두시간 거리이다. 새크라멘토로 가는길에 들린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75만의 크지않은 도시이지만, 다채로웠던 과거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고 유서깊은 건물들을 가능한한 훼손하지 않으면서(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일방향 도로가 많다고 함) 현대적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샌프란시스코는 도시경관이 바다와 잘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현지시간으로 29일 오후 늦게 새크라멘토에 도착하여 회의장소인 컨벤션 센터 바로옆에 위치하고 있는 웨라톤 그랜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 로비는 세계 각국에서 온 회의 참가자들로 북적거렸으며, 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다. 새크라멘토는 생각했던것 보다 조용하고 깨끗하며 잘 정돈된 도시였다. 인구 26만명의 작은 이 도시는 19세기 중반 금광의 발견으로 골드러시 시대의 중심지로 발전했다고 한다. 아직도 황금시대의 유산이기도 한 빅토리아풍의 건축물을 시내 곳곳에서 볼수 있어 당시 일확천금의 골든 드림시대를 느낄수 있었다. 현재 주청사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는 60년대 이후 새롭게 조성되었다고 하며, 시내 중심부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걸어가면 골드러시 시대의 중심지 올드 새크라멘토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이곳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다.

◆ 격식보다 효율성 위주로 진행된 IEC 회의

집행위원회(IEC)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일부 분과는 별도의 워크숍도 개최함)와 함께 개최되며, 회의 기간중 지역별 컨퍼런스 등이 함께 열리고 있다. 이번 새크라멘토 IEC회의에서는 미국 관개배수위원회(USCID)가 주관하는 제4차 국제관개배수 학술발표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회의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

음에도 별로 붐비지 않고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며 회의진행도 격식보다는 실질내용 위주로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원래 2001년 52차 IEC회의 개최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한국의 강력한 유치활동에 밀려 개최권 확보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개최권을 물려준지 6년만에 비로소 IEC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회의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일요일인 9월 30일부터 각 분과위원회 및 테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ICID는 3개 상임위원회와 2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로는 기술위원회(PCTA), 재정위원회(PFC), 전략기획위원회(PCPOA) 등이 있다. 상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주요사항을 검토정리하여 최종 의결기구인 IEC 회의에 부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핵심적인 분과위원회가 기술위원회(PCTA)에 속해있어 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기술위원회(PCTA)가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로서 필요에 따라 신설되며 과업이 종료되면 없어지게 된다. 우리 KCID 대표단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필자가 참석한 분과위를 중심으로 주요 관심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개배수사업의 투자재원과 자금조달, 관개용수 물값 등을 다루기 위하여 농업용수재정 분과위(WG 또는 TF)를 신설키로 하고, 위원회의 과업범위, 위원회 멤버구성, 활동방법 등에 관하여 활발한 의견개진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례에

결친 회의 결과, 2009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5차 세계물포럼(WWF-5)에 제시할 보고서 작성과 회원국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향후 농업용수개발비 국가보조, 관개용수 물값 징수 등 투자비용 회수(cost recovery)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용수관련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5차 세계물포럼(WWF-5)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현직 회장단을 중심으로 세계물포럼 테스크포스(TF-WWF5)를 구성하는 등 ICID가 세계 최대의 물관련 국제민간단체로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아시아지역 분과위에서는 일본 대표단의 제의로 현재 전 지구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상호정보교류와 이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를 새로운 과제로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분과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김태철 고문(충남대 교수)님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차기 의장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그동안 일본이 주축이 되어 운영해 온 아시아 최빈국 테스크포스(TF-LDC.AS)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TF과업을 종료하고, 내년에 아프리카 최빈국 테스크포스(TF-LDC.AF)와 통합하여 최빈국 지원 분과위원회(WG-LDC)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연안개발 분과위원회(WG-SDTA)는 분과위원장인 박상현 의장 주재로

별도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농림부 이봉훈 과장은 새만금 방조제 최종끝막이 동영상과 함께 '친환경적 새만금사업 개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 외국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대만의 Ruey 박사는 '대만의 간척과 수리시험'이란 주제로 흥미있는 자료를 보여 주었다. 토론과정에서 새만금 환경문제와 관련한 가벼운 논의가 있었는데, 전 ICID 회장이면서 새만금 소송에 정부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큰 도움을 주었던 솔츠박사가 나서 새만금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2009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지속가능 연안개발분과위(WG-SDTA)가 과업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KCID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D, 2014년 ICID 총회 개최 의사 표명

10월 4일까지 각 분과위원회 및 워크숍,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회의의 마지막날인 10월 5일은 하루종일 집행위원회(IEC)회의가 컨벤션센터 1층 전시관 홀에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KCID에서는 이봉훈 과장, 김태철 교수, 박상현 박사, 그리고 필자가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단상에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허유만 명예회장님도 부회장자격으로 단상에 함께 하였다. 회의는 미리 배포된 Agenda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21차 ICID 총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가 있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한 이란이 러시아를 여유있게 물리치고 유치에 성공하였다. 한국은 2014년 제22차 ICID 총회 개최의사가 있음을 회장단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가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입부회장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Kovalenko, 인도네시아의 Gany, 파키스탄의 Shaikh 등 3인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선출 투표에 앞서 3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는 허유만 부회장등 3인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그동안 부회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ICID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려고 노력했던 허유만 박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고 싶다.

집행위 회의 후반에 ICID의 'Theme-Systems'의 리더인 Blotman 박사의 '시스템의 현대화: TRIPLE'란 제목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강연 요지는 유역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환경-경제-사회문화 측면의 3원적 관계로 다양하게 해석한 것이었다. 강연내용이 좋고 발표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어서 최고 수준급의 강연을 듣는 듯 했다. 2006년도에 ICID에 발표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저자에게 주는 최고논문상(Best Paper Award)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Backeberg에게 돌아갔다.

제4차 국제관개배수 학술발표회는 물관련 장비 제품 전시회와 함께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학술발표회 주제는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관개배수의 역할' 이었으며, 예집트 수자원부 장관 등 2인의 주제발표와 총 16개 분야

9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농어촌연구원의 주옥종 계장이 '기계화 영농과 경지정리에 따른 관개용수량 변화', '농업한발 평가시스템 개발' 등 2편의 구두발표와 1편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전시회는 주로 물관리자동화 및 계측기 관련 첨단 장비위주로 전시되었으며, 농업용수 관리, 교육, 연구기관도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생각했던 것 보다는 행사규모나 참석자수가 작았지만 관개시스템 현대화, 농민참여 물 관리, 관개사업의 환경영향, 관개용수 재이용 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필요

KCID는 지금까지 2001년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속가능 연안개발 분과위(WG-SDTA)의 신설과 주도적 운영, 2명의 부회장 배출 등으로 세계 최대의 물관련 국제 단체인 ICID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면서 어느정도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조직적인 전략시스템이 미흡하여 ICID 무대에서 KCID의 역할과 위상이 더 이상 증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시대는 개방화와 국제화의 큰 흐름속에서 외국과의 교류협력과 국제무대에서 활동력의 신장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앞으로 국제능력을 갖춘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ICID 참여를 통하여 KCID의 역할을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